

[종합·해설]

정신 못차린 신당... 총선 지분 싸움

지도부 선출 계파간 힘겨루기 여전

대선 패배도 盧 정부 책임으로 돌려

대선에서 참패한 통합민주당이 뼈를 깎는 각오로 창조적 파괴에 나서기 보다는 기존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년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대선 참패 이후 최고위원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내부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재의 체제를 내년 2월3일 전당대회까지 유지하고 조만간 당 쇄신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당헌당규에도 맞지 않는다 당내의 복잡한 계파를 고려할때 잡음만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신당은 내년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 방식도 정하지 못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체제 정비 및 정국 타개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선 패배 원인과 향후 진로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모든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 돌리고 내년 총선에서의 기득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신당 내부에서는 합

의 추대와 경선 방식 등 지도부 선출 방식을 놓고 계파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경선을 주장하는 측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합의 추대 방식은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이 이뤄지면서 총선에서 국민에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합의추대를 주장하는 측

에서는 경선이 실시되면 대선 후보 경선 때와 같은 극심한 계파간 대립이 나타나 총선을 앞두고 적전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단 경선 방식은 정동영, 김한길 그룹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진 반면, 합의추대 방식은 손학규 그룹과 김효석 원내대표 등 민주당 탈당 그룹, 일부 친노 그룹이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근본적으로 당의 새로운 모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에서 당내 계파간의 합의적 현상 유지 방식으로는 대선 패배 직후 실시되는 총선에서의 승리

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전후를 기점으로 민주당, 창조한국당과의 합당 등을 통해,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계파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변화의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여러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단일대오를 형성,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감한 공천 혁명을 통해,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오종일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3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당선자

첫 주말 휴식 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3일 당선 후 첫 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전날 청와대 인근 '안가'(安家)내 테니스 코트에서 자문교수단 및 일부 측근들과 테니스를 친 이 당선자는 이날 주말에배에 참석한 것 이외에 특별한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 채 안가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이 당선자는 김윤옥 여사와 함께 아침 일찍 강남지역의 한 교회를 찾았다. 회색 정장에 회색 목도리 차림의 이 당선자는 맨 앞줄에 앉아 목사의 예배 인도에 따라 서고 앉기를 반복하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등 1시간 10분 가량 예배를 들었다.

예배 말미에 목사가 이 당선자를 신도들에게 소개하자 이 당선자 내외는 자리에서 일어서 손을 흔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교회를 나서면서 신도 50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것은 물론 쇄도하는 사인 요청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분당 앞 차량까지 100m 거리를 이동하는데 무려 40여 분이 소요됐다.

이 당선자는 오후 안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방향과 26일 이후, 이른바 27일경로 예상되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첫 회동, 첫 조각에 대한 기본구상, 18대 총선 대책 등에 대해서도 큰 틀의 구상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당 '쇄신' 성공할까

17대 대선에서 0.7% 득표율로 참패를 당한 민주당이 부활을 위한 쇄신 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386출신인 김민석 전 의원에 당 쇄신평의회위원장을 맡기고 주말과 휴일인 22~2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 문제와 인적 쇄신, 인재 영입 방안 등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당 쇄신평의회는 체제 정비를 위해 전당대회 개최 여부와 전대의 시기와 방법, 지도부 구성, 인적쇄신 및 인재영입 방안, 총선 전략 등을 마련해 연말까지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노쇠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3살의 김 전 의원에 쇄신평의회위원장을 맡긴 것은 당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쇄신평의회들은 저마다 반성과 향후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냈으나 명확한 반성이나 비판은 없었다.

유종필 대변인이 "이번 결과를 보면서 일찍이 예견됐던 것인데 당 지도부와 후보에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호남에서 후보의 득표율이 1%다.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민주당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지역기반이었던 광주와 전남에서조차 각각 1.1%와 2.4%만 각각 득표하는 등 활로를 찾기에 민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탈세력이 너무 많아 인재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향후 총선 정국에서도 인재 영입에 앞서 추가 이탈을 우려해야 할 정도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통합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란 간판과 쇄신을 위한 노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부활하겠다는 민주당의 노력이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 체질 바꾸고 인재 영입에 안간힘

광주·전남 민심 이반... 부활 미지수

한 반성이나 비판은 없었다.

유종필 대변인이 "이번 결과를 보면서 일찍이 예견됐던 것인데 당 지도부와 후보에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호남에서 후보의 득표율이 1%다.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민주당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지역기반이었던 광주와 전남에서조차 각각 1.1%와 2.4%만 각각 득표하는 등 활로를 찾기에 민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탈세력이 너무 많아 인재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향후 총선 정국에서도 인재 영입에 앞서 추가 이탈을 우려해야 할 정도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통합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란 간판과 쇄신을 위한 노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부활하겠다는 민주당의 노력이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선 '호남 쟁탈전' 치열 예고

연말 대서면 정치인 많고 지역 민심 물갈이론 높아

17대 대선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내년 4월 18대 총선에서는 범여권의 '호남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대선에서 호남 지역이 범여권의 마지막 정치적 기반으로 남았지만 '물갈이'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통합민주당은 물론 민주당, 한나라당, 창조한국당 등 각 정당과 정치 신인들의 발길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대선 당일인 지난 19일 저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후보를 내년 4월 총선에서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3.5%에 달했으나, 신당 지지층은 43.4%에 그쳤다.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은 유지 의견이 41.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대선 결과가 실망한 호남 민심이 총선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 진영에서는 전국에서 호남이 유일하게 한나라당 바람이 차단되는 당선 안정 지역으로 보고 너도 나도 호남 행 남행열차 티켓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구를 노렸던 정치권 인사 가운데 호남에 연고와 있는 인사는 일단 호남 출마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으며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도 호남에 눈길을 주고 있다.

특히, 한화갑, 박지원, 이정일 전 의원 등도 연말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에서의 호남 지역구 쟁탈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기에 호남에서 압도적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과감한 전략공천 등을 통해 호남 민심에 부응한다는 방침인데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에 당의 명운을 건다는 입장이다.

대권을 움켜쥔 한나라당도 후보만 잘 공천한다면 선전은 물론 의외의 결과도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호남 공략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은 유일하게 한나라당 바람에서 안전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범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며 "특히 탄핵 후폭풍에 국회에 진출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강하다는 점에서 통합민주당 내부에서도 과감한 전략공천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현재 광주에 4명, 전남 12명 등 광주·전남에서만 모두 16명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통합민주당 2명, 민주당 7명, 민주노동당 3명, 무소속 4명 등이다.

광주 지역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이 서구 갑에,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오병운 전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서구 을에 등록을 마쳤다. 전남에서는 통합민주당 우윤근 의원과 정철기 전 의원이 광양·구례에,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나주·화순에, 민주당 소속 이윤서 전 전남도회의 의장은 무안·신안에 각각 등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선거법 현상 퀴즈를 마칩니다

광주일보와 전남도 선관위가 지난 5주동안 실시한 선거법 현상퀴즈를 마칩니다. 그동안 참여해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퀴즈 당첨자 1명에게는 고급 정공청소기를 우송해드립니다.

※지난주 정답들이

문 1)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군수·시·군의회 재보궐선거에 대해 틀린 것은?(정답 ③)

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②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 ③ 선거일에도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이다

문 2) 선거일에 투표소안에서의 투표한 것 가운데 유효한 기표는?(정답 ④)

① 본인의 도장으로 날인 ② 불펜으로 동그라미 표시 ③ 모든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 ④ 한 후보자의 기표란에만 3번 기표

※지난주퀴즈 당첨자: 김미숙 광주시 서구 농성2동 632-19

光州日報社 全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완벽 대비 기회!! 최고의 직종들을 자랑하는 현대고시원용 고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책관리사 합격설명회 =
배우- (화,목) 오후 6시-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향서원
www.hgosi.net 062)222-6790

= 겨울방학 대 특강!!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 직종

행정직, 교원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모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설직, 물리직

①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월 2일 주·야 (총합)반모집 (합계예열)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최다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겨울방학 대특강

개강: 1월 17일 2차 12월 22일 1차 1월 2일

2008 공무원 합격설명회 1차 (화-목) 15:30-18:30 2차 (화-목) 15:30-18:30

개강 1차 12월 17일 2차 12월 22일 1차 1월 2일

사건예외형수중 1차 1월 2일 2차 1월 9일

한빛공무원학원 전대유료 복수정원
062)252-0252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주회 8주 2개월
★교육비: 무료(미술포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동부경향서원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순천 교육장소 연향동사거리 인스티튜도 옆 GMB영어학원 3층
문의: (062)434-7857

★연말연시 각종 송년회, 동문회, 교회행사 등 각종 행사 출장 공연★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